

R-3. 한국인 구치열에서 치간유두 존재와 치간골과 치아 접촉점 거리와의 관계

김현철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Background

치간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물은 자연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보고가 있다. 치간 조직의 소실은 전치부에서는 심미, 발음, 식편압입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구치부에서는 저작, 식편압입, 치간부위 우식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은 구치부 치간 접촉점과 치조골능 사이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Jemt(1997)의 Papilla Index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Method

남자 31명, 여자 14명, 총 45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령은 23세에서 60세(평균 42.5세)였다.

계측부위는 제1 소구치 18부위, 제 2소구치 31부위, 제 1대구치 40부위, 제 2대구치 37부위로 총 126개의 치간 부위를 선택하였다.

치간 유두를 Jemt(1997)의 Papilla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판막을 거상하여, 연조직을 모두 제거한 후, 골 결손부를 재형성하기 전에 치조골능과 치간 접촉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Florida Probe를 이용하여 0.1mm 단위로 10회씩 측정하였다.

Result

결과는 126 치간 부위의 평균 유두 지수는 1.37, 수직 거리 평균은 7.44mm를 보여주었다. 상관관계 계수(Pearson Correlation)는 -0.47로 상관관계가 다소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0.000)

각기 다른 치조골능과 치간 접촉점간 수직거리에서 유두 지수와 관계는 수직거리가 5mm일 때에는 50%에서 치간 유두 소실이 없었으나, 6mm일 때에는 95%, 7mm일 때에는 100% 치간 유두 소실이 있었다.

Conclusion

1. 한국성인 구치부에서 유두 지수와 치아 접촉점과 치조골능 수직거리 사이에는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2. 상악 구치부에서 수직거리가 5mm일 때에는 50%, 6mm일 때에는 95%, 7mm일 때에는 100%, 치간 유두 소실이 있었다.